# 3·1독립운동 100년…방치된 사적지들

미흡한 관리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단청이 벗겨진 3·1운동 유적 장성군 북이면 삼일사(三日祠, 왼쪽)와 100년 전 광주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장소이지만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는 광주시 남구 사동 부동교.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장성 삼일사 단청 벗겨지고 기둥 균열…함평 낙영재 쓰레기 수북
## 광주 부동교 담배꽁초 널리고 남궁혁 가옥터는 흔적 찾기 힘들어
## 광주·전남 127곳 안내 표지판 없는 곳 상당수…정비 서둘러야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와 선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후대에 남겨야 할 독립운동 역사현장은 방치되고 있다. 보기 좋은 행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할 사적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문한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삼일사(三日祠)는 빗장이 굳게 잠겨 있었다.

방문객을 처음 맞는 외삼문(外三門)은 오랜 기간 보수를 하지 않은 듯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에는 균열이 다수 보였다. 삼일사는 장성에서 가장 격렬하게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류상설 등 12인의 독립투사 위패를 모시기 위해 1989년 건립된 사당이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에 자리한 '낙영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문서당인 이곳은 함평 주민들이 일제 감시를 피해 만세 시위를 논의하고 태극기·격문 등을 제작한 장소다. 지난 2005년 복원돼 함평의 의기(意氣)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낙영재 내부에는 흙투성이 신발 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었고, 각종 행사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과 농산품 포장박스, 쓰레기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바로 옆 화장실은 묵은 때가 잔뜩 끼어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광주시 남구 부동교 인근 광주천변에는 이곳이 광주에서 첫 만세운동이 열렸던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부동교 위에는 일회용 커피컵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100주년 기념행사를 무색하게 했다.

1919년 3월5일 김철·송흥진 등이 모여 광주 만세운동을 계획한 남구 양림동 남궁혁 가옥터도 지난 2009년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이후 만세운동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공원 입구에 놓인 '3·1만세운동 발상지' 안내문에만 간략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 남궁혁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묵비석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잡초 사이에 놓여 있었고, 나무에 꽂혀 있는 태극기는 비바람을 맞으며 색이 바라고 찢어져 있었다.

종이 박스와 행사 자재 등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함평 3·1만세운동 발상지 '낙영재'

25일 국가보훈처와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총 926곳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각각 13곳, 114곳 등 127곳이 있다.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올초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을 일제히 정비·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인 실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정비가 마무리됐다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예향 광주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광주시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문회의를 거쳐 충장로 옛 광주지법터 등 7개 유적지에 4월 달부터 표지석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관리가 미흡한 유적지는 현황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김신혜 재심 두번째 공판…검·변 치열한 증거 다툼
# 재판부 "불법 압수수색 증거 재판서 배제"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의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검찰과 김씨의 변호인은 19년 전 수사 당시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열렸으며, 이례적으로 한 번의 휴정을 거쳐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17개의 증거목록을 제출했으며 이날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애초 수면제를 갈아서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했다가 알약을 간 그릇과 행주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자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꾼 점, 아버지가 사망하기 1~2시간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검 감정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며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이 고의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이 19년 전 피고인 김씨의 동의와 영장 없이 불법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집한 일명 '살인계획 노트' 등 증거들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향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세 번째 비공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와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대표 최성동)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하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음주운전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3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5일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간 서모(3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5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금파공고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본인의 그랜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박모(52)경위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무면허운전 등 63회, 하이패스 무단 통과 109회(780여만원 상당)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벌금수배자(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100만원 이상)인 서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씨는 인근 골목에 차를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차를 몰고 서울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3일 뒤 광주로 돌아온 서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거주지인 중흥동의 한 맨션 주차장에서 끈질기게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영상통화 하실래요?"… '몸캠 피싱' 사기조직원 검거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는 '몸캠 피싱' 사기 조직원을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몸캠 피싱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중국인 인출책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조직의 몸캠 피싱 사기에 걸린 피해자 2명이 송금한 750만원을 인출해 수수료를 받고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영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악성코드로 빼낸 피해자 지인 연락처들을 이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뒤에도 추가로 지울 영상이 남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 공무원·은행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광주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공무원과 은행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공무원 광산구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A씨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는 특정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입건됐다.

광산구의원 C씨는 구금고 선정 경쟁에 뛰어 든 은행으로부터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한 이른바 지정기탁금(800만원)을 복지재단을 통해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구금고 심의위원 등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됐다.

광주지방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수개월 동안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찰대 2023학년도 편입학 도입…문호 확대
### 고졸 신입생은 50% 축소

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힌다.

25일 경찰대에 따르면 편입학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26일 공포된다.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2학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으로, 편입학생은 '44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졸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 경험이 있는 편입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개방적 사고가 형성되고, 순혈주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경찰대는 보고 있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경찰대는 내다봤다.

재학 기간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됐다.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경찰대로 이관된다. 향후 '수사 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경찰관들의 빠른 진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과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성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조선대 교수 수사

조선대학교 A교수가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교수가 지난 9일 밤 9시께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21일 경찰에 접수됐다.

A교수는 학술대회 참석차 B씨를 비롯해 남성 대학원생 2명 등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으며, 학회가 끝난 후 저녁자리를 겸한 술자리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과 대학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서 "A씨가 20분간 추행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원생인 B씨 등과는 친밀한 사제지간이었으며, 학회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당시 술을 마시던 자리는 조명이 밝은 식당의 공개된 곳이었으며, B씨와는 어깨동무를 하고 토닥이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B씨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1차 조사만 진행한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왜 다른 남자와 동침해!"…헤어진 동거녀 흉기 협박

쌍나팔

○…동거를하다헤어진 뒤 얼마 안 돼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30대가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24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B(여·27)씨 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고 "함께 죽자"며 B씨를 협박했다는 것.

○…3년 동안 사귀다가 한달 전 결별한 A씨는 이날 자신의 짐을 챙기러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침대 등에서 낯선 남자의 흔적(?)을 발견한 뒤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관계자는 "이날 B씨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자, A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18타경13989 | 1 | 나주시 그린로328, 110동 2층 202호 [빛가람동,사랑으로부영1단지] 84.6750㎡ | 아파트 | 210,000,000 210,000,000 |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관리비가2018.9.분부터미납되어있다함 |
| 2018타경18496 | 1 |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길15, 118동 1층 103호 [신용동,용두주공아파트] 59.99㎡ | 아파트 | 113,000,000 113,000,000 | |
| 2018타경19154 | 1 | 서구 화정동 830 9동 5층 504호 49.14㎡ | 아파트 | 104,000,000 104,000,000 | |
| 2018타경19383 | 1 | 나주시 남고문로36-14, 111동 2층 204호 [송월동,송월주공아파트] 49.96㎡ | 아파트 | 55,000,000 55,000,000 |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 | | | |
| 2018타경18250 | 1 |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009-2 430.4㎡[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저촉] | 대 | 176,048,800 176,048,80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소재수목및조경석포함매각,컨테이너1동매각제외 |
| | | 나주시 노안면 문화길 19-5 97.35㎡ 제시외 다용도실 30.6㎡ | 단독주택 |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 비고 |
|---|---|---|---|---|---|
| [자동차,중기] | | | | | |
| 2018타경14272 | 1 |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내방로251번길9, 상가동 지하층비05호[쌍촌동,광명하이츠타운]등록번호:11두1867차명:아반떼연식:2016 | 자동차 | 11,000,000 11,000,000 | 보관장소:광주서구금호동503-16, 사용연료:경유 |
| 2018타경71510 | 1 | 사용본거지:나주시 산포면 등정길 48-1 등록번호:58구9694 차명:제네시스[GENESIS]연식:2014 | 자동차 | 16,000,000 16,000,000 | 보관장소:송암주차장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4. 9.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4. 16.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2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